



순천만 갈대밭이 초록빛 물결로 뒤덮이면서 전국에서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 제공>

을 여름 피서지 이곳이 '딱' 초록물결 넘실대는 순천서 즐겨요

순천만 습지·정원·선암사 숲길로 이어지는 '힐링 벨트' 물빛축제·달빛야행·세계동물영화제 등 볼거리도 풍성

여름시즌이면 온통 초록빛 물결을 이루는 순천만 일원이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심속 여름 피서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선암사 숲길로 이어지는 여름철 '초록 벨트'는 힐링 여행지로 인기다.

순천시는 이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을 여름 물과 빛, 문화제, 가든뮤지 등 다양한 축제도 준비중이다.

◇순천만국가정원 여름 물빛축제 = 순천만국가정원 여름 물빛축제는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순천의 아간 문화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동문에서 미로정원, 동문에서 꿈틀정원 앞, 분재정원, 앵무언덕으로 라이트 가든도 조성된다. 또 조명, 분수, 물안개 등으로 이루어진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주요 동선에 포토존을 마련했다.

물과 빛, 불꽃이 어우러진 워터라이

팅쇼와 주말, 공휴일에는 DJ페스티벌을 주중에는 달빛 버스킹을 공연한다.

◇순천 문화재 달빛야행 = 순천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달빛야행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순천문화재 달빛야행이 오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달빛야행은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밤에 듣는 역사이야기, 낮에도 밤에도 아름다운 순천부읍성의 달빛야행과 함께하는 8야(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문화의 거리와 전통문화유산인 향교 일원, 근대문화유산인 매산동일원, 옥천 생태공원을 활용한 역사·문화·생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공연 등을 선보인다.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 = 가든뮤지의 새 장르를 열어나가고 있는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진행된다.

교향악축제에는 소프라노 조수미와 국내·외 우수 교향악단을 초청해 정일

에서 수준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공연은 8월 31일 저녁 7시 조수미와 함께하는 가든 콘서트로 열린다.

한국을 빛낸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프라임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초청 연주회는 9월 1일 지역 청소년 관련 연주회, 지역 오케스트라 등 공연이 마련돼 있다. 기획공연으로는 리처드 용재 오닐과 오케스트라 무대가 9월 2일 열린다.

폐막공연으로는 성악가 김동규와 팝스 오케스트라단이 함께하는 공연이 마련돼 있다.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영화를 매개체로 동물과 소통하는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이번 동물영화제는 50여편의 동물관련 영화가 상영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산업박람회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동물영화 상영, 반려동물 관련 부대행사도 구성된다.

영화제 기간, FCI 도그쇼, 어질리티 대회, 반려동물운동회, 반려산업 세미나, 글짓기 대회 등이 진행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나주시, 한전공대 설립 등 내년 국비 확보 적극 요청

손금주 의원과 정책 간담회

나주시는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제19대 대통령 공약사업 실현과 내년도 원활한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나주·화순 지역구 민주당 손금주 국회의원과 만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 나주시부시장과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등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손금주 의원과 함께 대선공약사업 실행방안과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 및 가뭄대책 추진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부시장은 손 의원을 만나 대선공약

에 반영된 ▲한전공대(KepcoTech) 설립 ▲에너지산업단지 지정 개발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등 18개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대통령 임기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또 내년도 주요 국고지원요구사업인 문명천 내 ▲한내교 승상정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 ▲빛가람 스마트시티 구축 등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부탁했다.

이 부시장은 이와 함께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

해 우시지역 양수장 및 관정 설치 등 총 33억원의 가뭄대책 사업비 확보에도 힘을 보태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국회에서 지역의 대선공약사업 실현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나주시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총 108개 사업 2149억원(국비 1378억원) 규모로, 현재까지 공모사업 10개 사업 98억원을 포함 총 46개 사업 527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나주시 다도면 은사소하천 국민안전처 우수 소하천 선정

나주시 '은사소하천(사진)'이 국민안전처 주관 2017년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전국 공모전에 '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됐다.

나주시는 "국민안전처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 다도면 은사소하천을 '고즈넉한 고택을 따라 걷는 생태하천 은사천'이라는 주제로 출품해 우수상에 쾌거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기관 표창 및 1억5000만원의 포상금과 내년도 소하천정비 사업비와 관련한 인센티



브 혜택도 받게 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21억원 등 총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은사소하천 연장 1890m 구간을 개수·정비하고, 친수 공간 3개소와 저류지 2개소, 산책로, 조경, 여울, 물고기 서식을 위한 어소블럭 등 안전성과 친수환경성에

중점을 둔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했다.

시는 특히 하천 인근 은사마을과 도래한 옥마을, 혁신도시와 연계해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통해 아름답고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수 생태하천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24일 서현 작가와 그림책학교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순천시는 "24일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에서 '간질간질'의 서현 작가와 함께 6월 그림책학교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간질간질'은 머리카라 한 울로 출발한 상상력이 감각적인 캐릭터, 들쭉거리는 몸짓과 소리, 군무 연출로 이어지며 단박에 시선을 사로잡는 그림책이다.

그림책도서관 관계자는 "인기 작가인 서현 작가가 신작과 함께 찾아오는 만큼 모두가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그린 작가와의 만남은 아이들에게 더 없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그림책학교는 인기 있는 그림책작가의 그림책 이야기를 직접 듣고 관련된 체험을 하는 그림책도서관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접수는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061-749-8892)로 하면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국립나주박물관 27일부터 '실�크로드를 걷다' 사진전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은 "오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17년 사진전 '사진 속 실�크로드를 걷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사진은 실�크로드의 핵심지대에 해당하는 중앙아시아 사막과 초원지대의 풍토와 역사, 사람들의 모습 등을 소개한 것이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실�크로드에서 살아

가고 있는 사람의 역사와 삶, 자연과 문화를 크게 6개 주제로 구성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이번 사진전과 함께 실�크로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서 교섭사의 의미와 우리 역사와의 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강연도 마련했다.

강연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kwangju.co.kr

우리는 모두 가족대표로 산업현장에 있습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 하세요



우리 일터에서는 매일 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250명이 다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일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은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대표로 산업현장에 있습니다. 나의 안전이 곧 가족의 안전입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이 가족의 행복을 지킵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광주권역 산업안전보건 날 기념식 및 기술세미나 개최

정부에서는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강조주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권역 산업안전보건 날 기념식 및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오니 산업안전보건 관계자와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6월 29일(목) 13:10~17:30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 참석대상 : 사업장/기업의 안전보건관계자
- 참석신청 : 행사당일 참석 (무료입장)

행사내용

- 식전행사 : 산업안전보건 분야별 세미나
 - 세션1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환경의 변화(308~310호)
 - 세션2 : 광주권역 건설업 근골격계질환 세미나(201호)
- 1부 : 산업안전보건기념식 및 정부포상
- 2부 : 안전연극(파수꾼)

